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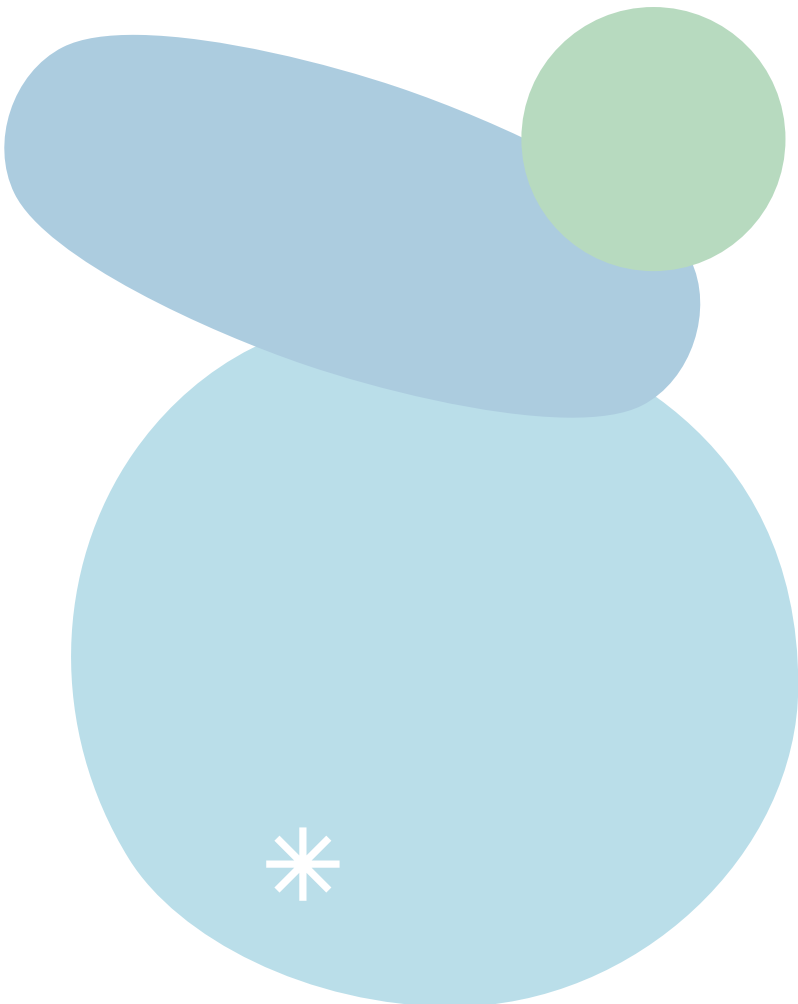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소식지 제2호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입니다.

소식지 제2호를 전해드립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대국민 운동입니다. 본 캠페인은 다양한 세대와 지역, 이념을 아우르며 사회 전반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을 잇다' 프로그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나아가 남북 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여러 활동을 소개합니다. 동행 캠페인은 '새마을운동'을 활용하여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회와 세대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과 함께 하는 소통 한마당 행사, 고독사 방지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대 강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미래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본부 드림

목차

머리말	3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 추진위원회 현황	5
부산동부	8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독사 방지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	9
동행, 문화와 세대를 잇다	
경상북도	10
“지구촌 문화를 잇는 새마을 운동” 성황리에 마무리	
서울경기북부	12
세대를 잇다 ‘세대공감520’ 설명회	
대전광역시	13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음악회 & 연(連: 잇다)	
전라남도	15
제1회 외국인과 함께 하는 소통 한마당	
인천광역시	16
〈동행: 세대를 잇다〉 6·25 참전 유공자와 함께 하는 세대 간담회	
인사 기고문	18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허태조 회장 “함께하는 한 걸음,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동행 캠페인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	

추진위원회
총 20개 권역





문화와 세대를 잇다
동행

장소: 거창산악문화원 대공연장 | 일시: 11월 14일 (목) 19:00~21:00 | 후원: 거창문화재단, 거창군

 동행

문화와 세대를 잇다

동행

문화와 세대를 잇다
강릉문화재단



부산동부 활동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독사 방지 캠페인
 <따뜻한 연결, 고독사 없는 사회로>

2024년 10월 12일,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부산동부 추진위원회와 HWPL 글로벌 4지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세미나 홀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지역 내 교육계와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의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였다. 본 행사는 지난 여름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설명회에 이어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였다.

행사를 시작하며, HWPL 글로벌 4지부의 윤원자 교류협력부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관심과 활동 하나가 1인 가구를 살리며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시킬 수 있다”며 캠페인의 필요성과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부산 내 도심에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고독사의 추세 및 인식 제고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였고, 향후 캠페인 활동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부산동부 추진위원회는 ‘캠페인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매년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 축사



▲ 윤원자 교류협력부장의 격려 인사 및 당부



▲ ‘지인끼리 안부 연락’ 깜짝 이벤트 모습



▲ 참석자들의 건의 및 제안 수렴

강원특별자치도 활동

동행, 문화와 세대를 잇다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짝이 되다>

2024년 11월 14일,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된 '동행: 문화와 세대를 잇다' 행사에 HWPL 글로벌 6지부 회원 150명과 인사 20명이 참여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각종 전시, 놀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을 노인 및 청년 세대가 함께 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정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심상원 UPF 평화대사는 “평화 동행이 세대 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너와 나’가 아닌 ‘하나’의 행사였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캠페인 추진위원회에서는 동행 캠페인이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돕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공연



▲ 투호 놀이



▲ 좌우명 가훈 쓰기

경상북도 활동

“지구촌 문화를 잇는 새마을 운동” 성황리에 마무리
 <글로벌 빌리지, 새마을운동의 정신 문화 계승의 시간을 가지다>

2025년 1월 12일, 경상북도 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 공원에서 ‘지구촌 문화를 잇는 새마을운동’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HWPL과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대구경북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대구·경북 평화 실천위원회(이하 평실위), 현창아카데미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민들과 HWPL 뉴욕, 시카고 지부의 근무자 등 총 61명이 참석했으며, 새마을운동의 시대 정신과 배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의 ‘문화를 잇다’의 일환으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간 화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대구경북 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문화 갈등 해결의 열쇠를 새마을운동의 정신에서 찾았다. ‘자조, 협동, 근면’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자립과 공동체 의식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지닌 자립적 경제와 협동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고, 이러한 유산은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모델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성원스님



▲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단체사진



▲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행사에 참석한 대한불교조계종 성원사 회주 성원스님은 “새마을운동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세계적인 발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명환 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가 더욱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이주민과 시민 간의 화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문화 교류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기북부 활동

세대를 잇다 '세대공감520' 설명회
 <오(5)해에서 이(2)해를 통해 공(0)감을 이루다>

2025년 1월 18일, 서울 은평구 은평신협문화센터에서 HWPL 글로벌 7지부가 주최한 '평화 실현 2025' 신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서울경기북부 추진위원회는 2025년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세대 간 갈등 해결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 각계 인사 49명을 포함해 총 162명이 참석했다. 이승주 HWPL 글로벌 7지부 명예이사는 동행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평화의 세계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해 평화를 현실로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서울·경기북부 지역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세대공감520' 캠페인을 진행한다. 520은 '오(5)해에서 이(2)해를 통해 공(0)감이 되다'라는 의미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 효(孝) 문화를 회복하며,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이승주 글로벌 7지부 명예이사



▲ 어린이 합창단 공연 '꿈꾸지 않으면'



▲ '세대공감520' 캠페인 브리핑



▲ 성용탁 선도사 발제

대전광역시 활동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음악회 & 연(連: 잇다)
 <평화의 선율을 타고, 통일의 하늘과 연을 잇다>

2025년 1월 18일, 대전 동구 용운동 용수골 어린이 공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2회 평화 통일 염원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동행, 민족을 잇다'라는 주제로, 세대 화합과 남북 간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행사는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중앙회와 HWPL 글로벌 10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대전·충청·세종 추진위원회와 대전·충청 평화실천위원회(이하 평실위)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음악단, 금산민속연보존회, 경량공업 등 지역 사회의 각계각층이 후원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남북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향한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전병권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중앙회 총재는 "HWPL 글로벌 10지부 회원들과 함께 평화통일 염원 음악회와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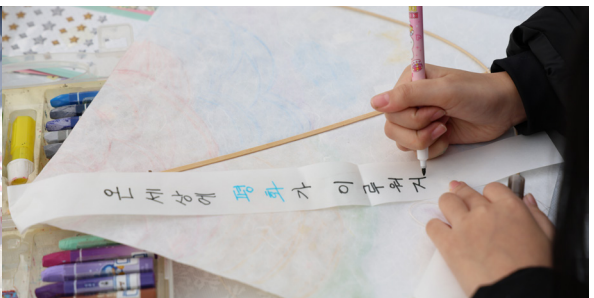
▲ 제2회 평화 통일 염원 음악회



▲ 아이의 손으로 완성되는 한반도와 평화 그림



▲ 평화통일 염원 메세지



이어 김주현 HWPL 글로벌 10지부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연날리기와 음악회를 통해 후대에 평화로운 세계를 물려주고자 한다”라며 “모두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뜻 깊은 참여

음악회에서는 새한빛사랑예술원의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바람의 멜로디’를 선보였다. 이후 아랑고고장구단의 장구공연과 환경음악단의 ‘아 대한민국’과 ‘찐이야’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연에 소망을 적어 날리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연날리기’는 민족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며, 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라남도 활동

제1회 외국인과 함께 하는 소통 한마당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의 문화와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 마련>

제1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행사가 2025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담양 소재 ‘담다’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HWPL 글로벌 2지부와 동행 캠페인 광주전남지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평화실천위원회(이하 ‘평실위’)와 (사)외국인근로자 인권센터가 주관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캠페인의 네 가지 주제 중 ‘문화를 잇다’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의 명절인 설 연휴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타국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한국의 문화와 정을 체험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행사는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동행 캠페인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8개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복 입기 체험과 포토존, 옷놀이와 제기차기, 떡국 나눔까지 다채롭게 즐겼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전남 평실위의 기관호 회장은 ‘동행 캠페인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큰 뜻을 향해篤심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 옷놀이하는 참석자들



▲ 한복 체험과 기념 촬영



▲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축사

인천광역시 활동

<동행: 세대를 잇다> 6·25 참전 유공자와 함께 하는 세대 간담회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동행: 대한민국을 잇다> 인천광역시 추진위원회와 HWPL 글로벌 9지부, 그리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인천지부 동구지회는 지난 1월 23일 인천 동구 보훈회관에서 '6·25참전 유공자와 함께 하는 세대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인천지부 동구지회 류서호 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유공자들과 약 20여명의 인천 지역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유공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참석자는 “열아홉에 전쟁이 터지면서 영원히 가족을 잃어버려 75년 동안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피난길에 떠돌다가 군에 입대했고, 낮에는 총과 무기로, 밤에는 군도로 싸웠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도 안 되는 불빛 없는 밤에 내가 살기 위해 싸워야 했다. 유격군으로 계급도 군번도 없이, 미군이 주는 배식과 무기로 전쟁에 참전했다. 그저 고향을 지키고 싶었다.”며 참전 경험담을 전했다.



▲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참전 유공자들



▲ 4명의 6·25참전 유공자들



▲ '학도병의 편지' 영상 시청



▲ 참석한 청년들의 소감 발표와 질의응답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청년은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귀한 경험담을 나누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 미디어로만 접하다가 대면하여 실제 얘기를 들으니 더 와닿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데,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동구지회의 원경남 부지회장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하지 못했던 전쟁의 경험담을 청년들에게 전하게 되어 감사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HWPL 글로벌 9지부에 감사하다. 행사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인사 기고문

“함께하는 한 걸음,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 동행 캠페인과 산림 보호의 중요성”

허태조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 허태조입니다.

저는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여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동행 캠페인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하려면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협력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동행 캠페인입니다.

저는 동행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타인과 함께 걷고, 나아가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치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행 캠페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입니다. 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이 때야말로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공동 목표인 평화와 상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동행 캠페인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동행 캠페인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페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일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환경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극적인 화재로 우리나라는 소중한 산림을 상당수 잃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도 산림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은 몇 사람만의 힘으로는 가꿀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애정을 품고, 환경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산림과 환경 보호와 피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산림 환경 훼손 행위와 산불예방, 산림 녹화, 산지정화활동, 환경캠페인 등 환경 지도와 관련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 나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 허태조





대한민국을 잇다